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목사님 품에 쏙, 유치부 아이들의 미소포착!

영혼은 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종향 목사와 함께하는 영혼의 아틀리에

요즘 지상파 방송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은 핸드폰으로, 깊은 몰입은 대형 화면과 공연장으로 가버려, 그 사이에 낀 지상파는 이도저도 아닌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길을 내준 것이 지상파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한 주 내내 작은 화면과 큰 화면 사이를 떠돌다 보면, 어디에도 단단히 붙어 있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교회 예배도 핸드폰과 대형 무대의 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의 전수는 단말기를 통한 정보 습득이나 압도적 무대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줄기에 붙어 나무의 생명 줄기 안에 머물기만 하면,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자체가 경건입니다.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머무름은 우리의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깊어집니다. 영혼은 몸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는 입, 말씀을 듣는 귀, 성경을 읽는 눈을 통해 영적 감각이 열립니다.

옆 사람과 잡고 기도하는 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꿇는 무릎, 얼굴 마주하며 음식을 먹는 그 대면의 시간 —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신앙은 실체가 됩니다. 단말기와 극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체험이 몸으로 모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 공적 예배, 공적 기도회를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기다립니다. —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오목사 드림

예배 순서

찬 송 ····· 다 같 이

성경봉독 ····· 룻기 1:15-18 ····· 안나현 학생

설 교 ····· 텅 빈 삶에서 채우는 삶으로 ····· 오종향 목사

찬송기도 ····· 다 같 이

안 내 ····· 다 같 이

축 도 ····· 오종향 목사

점심친교 ····· 모든 이 환영

성경봉독 청소정리

4/19 안나현 4/19 김성배조
4/26 이시원 4/26 우문주조

교회 소식 및 안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유치부 주일예배
보물찾기

2층 교육부실
11:00-12:10

초등/청소년 양육반
예수마당 / 어성경 구약반

2층 교육부실
초등부: 10:00-10:40
청소년부: 13:00-14:00

금요기도회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3층 예배실
금요일 저녁
19:30-20:30

리딩지저스 가이드
(사무엘상 20~31장, 시편)

담임: 오종향 목사

한 명이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소망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 교육: 최은총 전도사, 교사: 유은희
- 조장: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 후원 선교사: 김남진/김성은 (영국 기도 선교), 임일혁/송경남 (캐나다 이주민 선교), 하**/강** (동남아시아 무슬림 선교), 조샘 (라이프스타일 선교훈련)
- 자비 사역 (구제, 구호): 유니시드(북한 이탈 학생 장학), 시선오브(자립준비청년 돌봄), 이천 꽃피는봄날 보호종료아동(생계 지원), 소망을 찾는 이(노숙자, 쪽방촌)

오늘의 말씀

룻기 1장(우리말성경)
15.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네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16.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17.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18.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그룹 나눔

1) 오늘 설교를 듣고 가장 와닿은 한 가지는?

2) 오늘 주신 메세지를 내 삶에 연결한다면?

뉴시티교회 선교 동역 소식 및 기도제목

따뜻한 시선, 다정한 이웃 : 내일을 함께하는 '시선오브'






[소개]

-시선 오브는 보호를 받고 사랑받기 마땅한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나기를,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곁에서 삶을 함께하고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2016년 9월 총신대 보육원 봉사동아리 '시선'으로 시작하여,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개]

-시설 내 보호아동 대상
: 일상적 경험'시선 나들이',자립 준비 조언 '버디',정기 봉사활동
-자립 준비 청년 대상
: 정기 모임, 명절 모임, 동행 사업(부동산 계약, 서류 업무), 자립 캠프(멘토, 멘티)

[기도제목]

1. 시선오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과 아이들과의 만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불안과 다툼이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평안과 사랑만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봉사자에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 사랑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